



대학(大學)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라는 뜻이다. 지금의 대학은 과연 이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 교육부의 정책에, 사회적 분위기에 대학의 본질은 흔들리고 있다. 취업률 평가에 의해 전공이 서열화 되는 지금, 대학은 '취업 양성소'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다. 대학생은 대학에 들어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방황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자'는 생각으로 4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낸다.

대학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고민하는 곳이어야 한다. 대학이기에, 현재만을 살아가는 안 된다. 이에 본지는 우리의 교육현실과 학생들의 교육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점검하면서 나아가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이 기획은 1773호(4월 6일자)부터 3회에 걸쳐 진행된다.

1학년 교양교육, 학생기대와 교육취지가 엇갈린다

대학에 들어온 젊은이들이 입학 당시보다 더 성숙한 인간, 더 나은 인간, 더 유용한 인간이 되어 사회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이것은 대학교육의 목적이자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사회가 대학에 지어준 기본 책임입니다.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소계 문구다. 12년간의 의무교육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온 새내기들은 본교에서 어떤 수업을 듣고 있을까. 신입생들은 본교의 1학년 교양교육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1학년 교양교육과정 전반의 모습을 살펴봤다.

합리적 지성인을 목표로 하는 본교

본교는 지체체를 겸비한 인격을 연마하고, 창의적 학문탐구와 전문적 실천능력을 배양하여, 한국과 국제 사회에 기여할 개방적 지도력을 육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사고와 표현 △영어 강의(Academic English, 통합영어) △학내 세미나가 공통교육으로 지정돼 있다. 교양교육실 측은 '신입생들의 기초적인 학업능력 배양과 학과 이해도 증진'을 위해 위와 같은 과목들을 필수로 지정했다고 했다.

본교는 학생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실용적인 대응능력(언어, 논리, 추론 능력)과 함께 성공적인 전공 학습을 위한 기초수학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교양교육의 목표를 뒀다. 교양교육실 측은 "신입생들은 교양교육과정을 통해 대학에 잘 적응하면서 앞으로의 삶과 학문의 기초가 될 자신의 교양을 스스로 폭넓고 깊이 있게 깨우치고 함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교양은 삶을 위한 자양분이자 한 사람이 자신의 인간 됨됨이를 완성하는 바탕"이라고 말했다.



한 세미나에 참석한 학생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1학년 세미나

본교 1학년 세미나는 기존의 전공기초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으며 그 대안으로 2013년부터 시행됐다. 1학년 세미나는 학과 자체 프로그램과 국가에서 권고하는 '성 인지기검수형' 학생 교육'과 '안전관리 교육'이 포함된 '신입생 합동 강좌'로 나뉜다. 2014년 2학기부터는 합동세미나는 온라인 수강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교양교육실 측은 "1학년 세미나를 통해 학생들은 대학생다운 삶의 자세와 지성인다운 자세를 익히게 된다. 강의의 구성방식과 내용이 허술한 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교양교육실은 강좌의 콘텐츠를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준 교양교육실 과정은 "전문가들에게 강수를 받아 보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과별세미나는 학과별 특성과 전공에 맞는 컨텐트로 진행돼 신입생 합동강좌에 비해 학생들의 관심과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김소정(인문대 고미사4) 씨는 "매주 제시하는 주제에 대한 글쓰기를 했으며 자신이 고고미술학과에 들어온 이유를 발표하는 시간도 거쳐 유익했다"고 말했다. 이상준 과정은 "1학년 세미나의 본질은 사제 간 만남"이라며 "앞으로도 1학년 세미나의 본 의미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cademic English

Academic English는 신입생에게 학문적 영역의 영어에 대한 능력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으로, 영어 강의를 통해 신입생이 영어에 대한 친근감과 접근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2012년부터는 신입생 영어능력평가를 통해 초급반과 고급반에 각각 총 인원의 20%를 배정하고 나머지 60% 학생은 중급반으로 배정해 수준별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Academic English의 분반이 단편적이라 수준별 강의의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신창석(사범대 지교14) 씨는 "상, 하위 각각 20%만 다른 수준의 반으로 배정돼 대다수가 속하는 중급반 내부에서 영어능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서 좀 더 세분화 분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cademic English 강의를 담당하는 한 외국인 교수도 "학급당 배정 인원이 많아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힘들다"며 "분반의 수를 늘리고 한 학급당 인원을 20명 내외로 줄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제어학원 외국어센터 신준호 씨는 "학기별로 1-2개씩 조금, 조금 분반 수를 늘리고 있지만 아직 중급반의 비율이 높기에 비율 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합영어

세종캠퍼스 1학년 학생들은 '통합영어'라는 의무 영어 과목을 수강한다. 기존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영의 성적으로 단순히 반을 나눴다며, 올해부터는 캠퍼스 내에서 자체적인 영어 시험을 실시한 후 반을 배정한다. 수능성적으로 영어실력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수업 방식과 내용엔 큰 변화가 없어 학생들이 수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합영어회화는 작년부터 토익 스피킹 방식을 도입했지만, 토익 스피킹의 특성에 맞지 않는 암기식 수업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임단비(경상대 경제15) 씨는 "교수님이 예상 질문을 여덟 개 가르쳐주고 그 중 두 가지를 뽑아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조성준(본교-교양교육실) 교수는 "학생들의 취업에 공인영어성적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나 공인영어성적 교재 사용에 집중하는 현재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교 차원에서 커리큘럼을 바꿔 학생들이 영어로 된 글을 읽거나 쓰고 말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통합영어를 통해 실질적인 영어능력 향상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예진(인문대 사회15) 씨는 "통합영어 교재가 토익 교재라 토익을 유령별로 정리해주는 수업일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때 지문 공부 하듯 단어를 알려주고 본문만 한 줄씩 해석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다는 것이다. 김용희(과기대 컴퓨터정보13) 씨 또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그대로 배운 것 같다"며 "통합영어가 그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안됐다"고 말했다.

사고와 표현

신입생 대상 공통교양에 해당하는 '사고와 표현'은 대학교육 이수에 필요한 사고, 표현능력을 함양한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본적적인 전공 수업에 들어가기 전, 기본적인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학생들은 대부분 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다. 김홍식(공과대 전전14) 씨는 "사고와 표현 강의를 통해 다양한 글을 접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수자마다 강의 방식이 천차만별이라 사고와 표현의 효과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어떤 강의는 논문 작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또 다른 강의는 발표나 토론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다. 장재현(경과대 정경15) 씨는 "사고와 표현은 어떤 교수에게 수업을 듣느냐에 따라 수업에 대한 평가가 난립한다"며 "심지어 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공과목을 위주로 강의하는 교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준 교양교육실 과정은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한 건 맞지만, 본교 교양교육실은 교재나 교수님 용에 관한 결정권이 없다"고 말했다.

글 이해전, 김범석, 이경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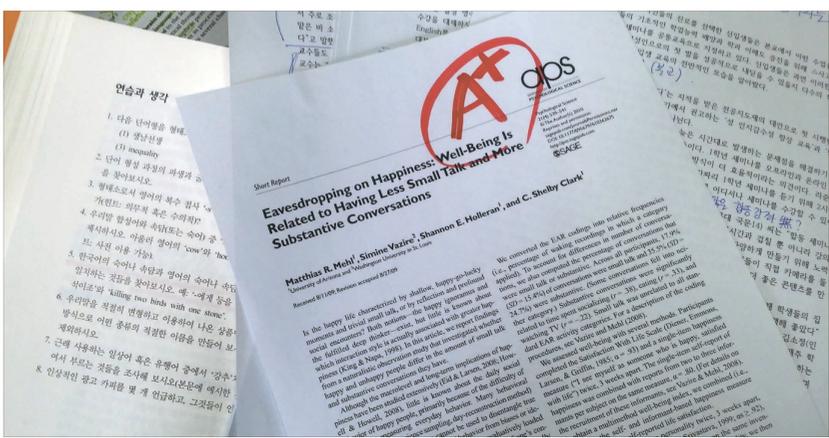
news@kukey.com
사진출처: 고대신문 DB

수용적인 학습자세가 더 유리한 성적시스템

▶ 1면에서 계속

창의적 사고역량도 정리 능력

본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 중 하나로 '창의적 인재'를 꼽았다. 영재호 총장은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해 무감독시험을 시행하자는 정책을 내세우기도 했다. 영 총장은 "창의적인 시험문제를 낸다면 오펜북 시험이라도 무서울 게 없다"며 "책을 보면 답을 적을 수 있는 문제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학생들은 무감독시험의 손기에는 공감하나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황해선 씨는 "9년간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대학이 됐다"고 갑자기 창의적인 수업진행을 하고 창의적 문제를 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어찌됐든 시험은 수업내용을 이해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고 현재 수준에서는 창의적인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다 똑같은 답안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지영 씨도 "창의력이 학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업방식과 평가방식이 현재의 대학시스템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학습 내용을 교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라는 논리였다. 가끔 시험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부분이나 공금한 내용을 생각해 보는 방법을 알려주며 해당 내용을 찾아 읽거나 수업이 설명하지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기억하는' 상태를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승준(이과대 화학과) 교수도 창의적인 학생보다 수업을 잘 받아들이는 학생의 성격이 좋은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전 교수는 "요즘 시험의 경우가 다양한 스펙트럼의 성격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문제를 낸다"며 "시험문제를 평이하게 냈을 때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은 보통 보편적 매리가 좋거나 창의적이기 보다는 학실하고 성실한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여러 번의 필기포 주요 내용 단권화

노트 필기법은 공부법 안내서에 자주 나오는 전략 중 하나다. 중요한 내용이 한 눈에 드러나도록 시각화, 도식화를 적절히 하고 정리와 요약하는 것이 효과적인 필기 방법이다. 본교 교양교육실은 교재나 교수님 용에 관한 결정권이 없다"고 말했다.

글 이해전, 김범석, 이경주 기자

news@kukey.com
사진출처: 고대신문 DB

교수님이 내 가치관과 다른 얘기를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의 틀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 지 생각해보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수들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라는 것만 보거나 공금한 내용을 생각해 보는 방법을 알려주며 해당 내용을 찾아 읽거나 수업이 설명하지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기억하는' 상태를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승준(이과대 화학과) 교수도 창의적인 학생보다 수업을 잘 받아들이는 학생의 성격이 좋은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전 교수는 "요즘 시험의 경우가 다양한 스펙트럼의 성격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문제를 낸다"며 "시험문제를 평이하게 냈을 때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은 보통 보편적 매리가 좋거나 창의적이기 보다는 학실하고 성실한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조별과제가 가진 이점에는 충분히 공감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자료 조사, PPT등의 기술적 측면이나 사람들의 의사소통 방식 등의 역량을 조별과제를 통해 배운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개인과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주로 보였다. 다른 사람들의 소통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김소현 씨는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시간을 조율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조별과제는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해선 씨는 "팀 풀을 겪어본 뒤, 2학년 때부터는 웬만하면 피하려 한다"며 "단순히 혼자 지식을 얻으거나 개인과제 선호한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조별과제에 임하게 된다면 이들은 주로 리더 역할을 맡고 남들보다 더 많은 책임을 떠맡는 등 과제를 열심히 수행했다. 김소현 씨는 "어태까지 조별과제에서 주로 조장역할을 맡아 어떤 주제를 맡았는지, 어떻게 토론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의견 제시를 맡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마지막까지 조별과제를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했다. 황해선 씨는 "조원들에게 일을 분배한 후 마지막에 합쳐서 전체적인 것을 보고 부족한 것을 채워놓거나 수정한다"고 말했다.

생활은 조절하고 공부는 배분하고

인터뷰를 진행한 학생들은 해야 할 일에 맞게 생활을 조절하고 과제를 관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남들보다 열심히, 부지런히 생활하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지역 설립 기숙사에 살고 있는 민지영 씨 아침 6시에 기상해 자정 정도에 취침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민 씨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습관이 되니 남들보다 오전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한 시간 가까이 사편"이라고 말했다.

민지영 씨도 교수님과 자신의 견해가 다른 경우 딱히 다른 대처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아직 나는 어리기 때문에 사고의 틀이 완성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다"며

ING생명 사랑의보험 캠페인

'사랑의 보험금 캠페인'은 고객님께서 종신보험에 가입, 보험 수익자를 후원하고자 하는 자선단체 또는 학교로 지정하시는 선진 기부 문화입니다.

2011년 ING생명이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한 이래, 1,500여명의 고객님이 동행하여 기부를 통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말 기준)

「ING생명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단체들」

- unicef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한국여성재단
- dail 다림복지재단
- 굿네이버스
- 이웃사랑
- 아름다운재단
- 한국장애인개발원
- KAQF 퀘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 위 유망 단체 외에 비영리 법인 자선단체 및 학교도 수익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ING생명 WORLD지점
재무설계 이훈수 FC
010-3657-0526

- 2013년 12월 ING이사
- 2014년 ING CUP CONVENTION대선
- 2014년 ING SUMMER 대선
- 2014년 NEW STAR AWARD 대선
- 2014년 PREMIER FC 대선
- 원혜 2013년 3월, 상공-3W 54주 대선
- 원혜 신임 교육위원장
- 원혜 맥스터 멤버 활동

www.inglife.co.kr

FIRST TIME IN THE WORLD

SOLSON'S TOOLS

International Awards Winner

INVENTION

INNOVATION

RESEARCH

DEVELOPMENT

AWARDS & ACHIEVEMENTS

수상 내역 및 특징점

-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제품군
- 국제 특허 인증
- 독일 TÜV기관에서 ISO 9001:2008 인증획득
- 세계 지적 재산 관련기관(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수상
- 인디아 대통령으로부터 올해의 최고 혁신상 수상
- 영국 BSI(British Standard Institution)에서 품질 인증
- 미국 사카고에서 소장장인 상 수상
-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 방위 산업 부 인증
- 뉴욕 타임즈 선정 "당신이 가져보지 못한 최고의 제품"

본의 : TEL / 02) 2689 - 7764
HP / 010 - 2223 - 8980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200-6
A동 1211-1호
WWW.huneed.net

미국 사카고 국제 Hardware Show
수상인 상 수상

미국 사카고 국제 Hardware Show
Packaging Award 수상

스페인 제네바 지역 재산과 인증 기관
WIFO 상 수상

인디아 대통령 - 최고 혁신상 수상

독일 TÜV - ISO9001:2008 인증

영국 BSI - 품질 인증

워싱턴 DC 펜타곤 방위 산업 부 인증

인디아 방위 산업 부 장관 인증

뉴욕 타임즈 선정
"당신이 가져보지 못한 최고의 제품"

할리우드 스타(앤절라) 인증

인디아 수출인 은행
최다 수출인 회사 수상

이코노미스트 선정
"혁신의 노미우를 바꾸는 오프"

NEED BASED SOLUTIONS